

# 라운아띠 1871 앵마팀



우리의 세 번째 이야기, 미얀마에 스며들다

# 11월 보고서 목차

10.31 – 11.14



결로 생활

비자 트립 in 방콕



11.17 – 11.20

11.21 – 11.30



다시 일상



느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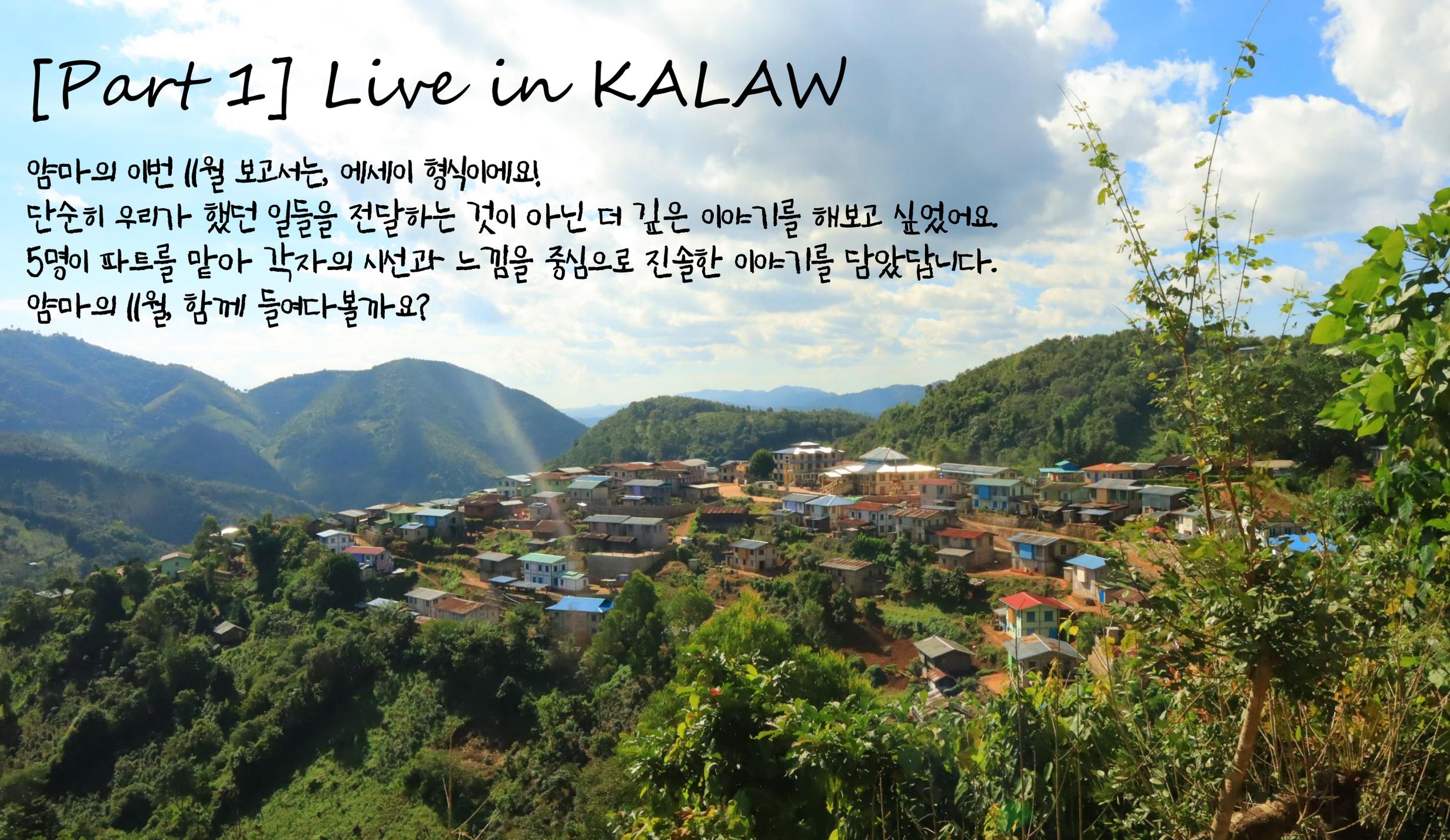
# [Part 1] Live in KALAW

엄마의 이번 11월 보고서는, 에세이 형식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5명이 파트를 맡아 각자의 시선과 느낌을 중심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답니다.

엄마의 11월 함께 들여다볼까요?



# 꺄로 가는 길

Storied by 한희



11월 1일 우리는 꺄로로 출발했다.  
9월부터 시작되었던 양곤 Ymca의 생활이 익숙해져 가고  
조금은 지루함이 생겨오던 시점에서 꺄로로의 출발은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른 아침 일어나 기차를 타러 갔다.  
기차는 내가 생각하던 것과 조금 달랐다.  
좋은 기차라는 말과 30시간을 간다는 말에 좋은 기차를 상상했지만  
우리가 오를 기차는 평소 타던 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걸 타고 30시간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꺄로로 간다는 설레는 마음에  
언제 30시간 기차를 타보겠어 하는 생각으로 금방 변했다.  
하지만 가는 길 허리와 엉덩이의 통증은 설렘만으로는 조금 힘들었다...  
꺄로로 가는 길 그곳이 조금은 춥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기차 밖으로 내민 손이 점점 시원하게 느껴졌고 내 기분도 같이 시원해졌다.

그렇게 한참을 열심히 달리던  
기차는 새벽 2시쯤 정거장에 잠시 멈췄는데 그곳의 밤은  
양곤과 달리 조금은 추웠고 그런 추위 때문인지  
자리가 불편해서 였는지 잠을 뒤척이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있었고  
밖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돗자리를 깔고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지금은 잠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눈에 담았다.



손을 내밀며 창문을 두드리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조금 놀라기도 하며  
 오랜만에 맡는 새벽공기가 좋았고  
 어딘가로 떠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과 작은 생각들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꽤 이른 시간부터 아침식사를 파시는 분이 기차에 올라탔다.  
 그분이 파는 아침은 조금은 나에게 힘든 진한 냄새가 났지만  
 생각보다 맛있었고 한그릇을 먹어치우니  
 하나,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8시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모두들 아침을 해결한 후  
 기차는 다시 출발했고  
 어제보다 더 많은 산을 지나가고 기차는 점점 산속으로 들어갔다.  
 가면서 산 한가운데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집을 보며  
 저런 곳에서 나물을 캐먹으면서 지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나뭇잎을 잡아보려 손을 뻗어보기도하고  
 창문에 기대 졸다가 나뭇잎에 싸대기를 맞기도 하면서  
 열심히 달리다보니 어느새 꺾로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산 생활은 시작됐다.

30시간을 달려 도착한 꺄로에는 산드라 간사님과 다년 총장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까지와서 더욱 더 추운 날씨였다. 날씨부터 꺄로에 도착했다는 것을 실감하며 우리의 꺄로 여행은 시작 되었다. 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갔다. 산에 가면 꼭 산에 있는 산 카오스웨를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도착하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산에서 처음 먹은 산 카오스웨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산이라서 더 맛있었던 거 같다. 배가 너무 고파 산드라 간사님이 일어난 사이 식사가 끝나신 줄 알고 계란 후라이를 슬쩍 먹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계란후라이를 찾으실 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신나게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2일동안 지낼 집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집은 살짝 놀라웠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샤워실이 없었고 화장실도 밤에 가기엔 살짝 무서워보였다. 그래도 기차에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나와 얼른 샤워를 하고 싶었던 나는 우물로 향했다. 우물에서 하는 샤워는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다. 진짜 짱 재밌었다. 왠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나게 샤워를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그 후 준비된 저녁을 먹으니 저녁은 또 왜 그리 맛있는지 지금도 기억난다. 돼지 감자 볶음 이었는데 만약에 그걸 한국에서 판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사 먹을거 같다. 벌써 이렇게 맛있는게 많은데 2주 동안 얼마나 많은 맛있는걸 먹을지 기대되는 시간이였다.



# 인레호수



깔로에서의 2일 중 우리는 인레호수라는 곳을 구경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트를 탔는데 30시간 기차를 타고 차도 타고 보트도 타고  
 정말 탈복이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트를 타며 돌아본 그곳은 정말 예쁜 곳이었다 시작은 흙이 가득한 물이었지만  
 보트를 타고 조금만 가다보니  
 완전 깨끗한 물이 나왔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져 있었고  
 하늘은 구름이 자기 모습을 뽐내듯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물위에 떠있는 집들을 보며 저런 집에 살면서 수영하면 진짜 재밌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상한 자세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처럼 물고기를 잡는 내모습을 상상하다 물에 빠져버리는 모습만 떠올라서  
 혼자 민망해하기도 하다보니 어느새 보트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실을 손수 하나하나 만드는 사람들도 보고 칼을 만드시는 분들도 보며  
 신기해하고 비싼가격에 조금 놀라기도 했고  
 알렉스가 직접 싣 도시락도 먹으며 천천히 구경하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풍경들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날 하루만큼은 여행 온 기분에 조금 들떴던 하루였다.

# 걸로, 만남



라운아피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민가에서의 시간을 말할 것이다.

양곤에서의 생활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보육을 하며 만난 아이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지만 민가는 좀 더 특별했다.

민가 그 마을은 마을이라기 보다는 민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에게 집을 빌려주신 카리스마 넘치시는 **할아버지**

항상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는 손맛 최고 **할머니**부터

우리가 놀러 가면 항상 맛있는 커피와 과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옆집 할머니**

모형가를 같이 나눠주시고 반겨주시던 **앞집식구 분들** 등

그냥 길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인사하면 10명 중 9명은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실 정도로 너무나 고맙고 우리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었다.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들을 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미얀마에 오고 나서 누군가 내게 미얀마에 뭐하러 왔어요라고 물어보면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양곤에서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생활들을 하며 약간은 통제된 느낌과 우리를 위한 것은 알지만 조금은 답답하게도 느껴졌던 보호들을 받으며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 골칫거리가 된듯했고

보육을 나가 우리를 좋아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지쳐하는 내 모습에 미안했고 무언가를 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봉사활동을 하러 왔어요라고 말하기 조금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민가가 더욱 좋았던 것 같다 민가에서는 많이 자유로운 느낌이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냥 지금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한번이라도 더 웃게 만들고 싶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에 집중했다.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민가에서는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팀 적인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관계들을 만드는 시간이 더 많기도 했다.  
 그렇게 많이 돌아 다니려고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온 것 같다.  
 눈만 마주쳐도 히히히 헤헤헤 하면서 해맑게 웃어주고  
 어깨 부딪히면서 장난만 쳐도 너무 재밌었던 문친  
 풋살을 정말 좋아하고 평소에는 무뚝뚝한 듯 한번씩 어깨를 주물러주던  
 풋살짱 텃아웅 투이, 영어를 잘하던 트래킹 마스터 넌밍  
 옆집에 있는 인사는 얼마 못했지만 손이 더럽다며 악수를 피하려던 착함을  
 사람으로 만든거 같은 풋살왕 꼴라 (풋살 꼭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앞집에 모헝가를 정말 맛있게 해주신 가족분들  
 내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하면서 귀엽다고 말해주시던 분  
 같이 유격정신을 외치며 마을을 뛰어다니던 포켓몬 가면을 쓴 아이들  
 밤이 되면 슈퍼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벼운 율동에도 좋아해주는  
 마을 분들 나에게 붓다에게 절을 시키시고 예~로 대화하던 생강밭 대부호 아저씨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며 킁킁대며 좋아하던 미퓨, 해웨이





함께 산 댄스를 배우기도 했고 k-pop을 좋아해서  
 같이 듣기도하고 말이 안 통해  
 그냥 각자 할말만 하다 웃기도 하고  
 단어 하나에 웃고 행복해하며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은 민가였다.  
 나랑 조금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접하고 있는  
 이들과 편하게 앉아서 말은 안 통하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그들에게 내가 친한 친구로 기억에 남아있다면  
 아니라도 그냥 기억에만 남아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 같다.  
 이제 누군가 나에게 미안마에 왜 왔어?라고  
 물어본다면 너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어라고  
 말할 거 같다.



## 걸로 집에서 요리



민가에서 우리는 장작을 패서 밥을 해먹었다  
 처음으로 장작을 패서 불을 집핀다는게 너무 어려워서  
 몇 시간씩 걸려 밥을 짓 다보니  
 하루에 반을 밥해 먹는데 보냈지만  
 나중엔 그래도 실력이 늘어서  
 조금씩 시간이 줄어드는걸 느끼며  
 여긴 밥 해먹는것도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밥을 해먹으면서 미얀마의 마법의 소스 닭 가루도 알 수 있었고  
 여러가지 감자요리를 도전해 볼 수 있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매운 계란볶음을 도전했다가  
 결국 계란찜을 만들어 버리기도 했지만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 꺄로를 걸다



민카 마을에 도착 후, 다음 날 트레킹을 했다.  
꺄로가 트레킹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마을 낮은 산 정상에 위치한 파고다로 출발~

산을 오르며 꺄로가 트레킹으로 유명한 이유를 실감했다.  
파란 하늘아래 사방을 둘러싼 산과 마을, 저 멀리 보이는 풍경까지 정말 아름다웠다.

파고다 앞에서 사진을 찍다 문득 우리만의 포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얌마 포즈를 만들어냈다. 정확한 각도와 글자를 위해 파고다 앞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찍었다.

그리고 5명이 다른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몸을 안 기울였냐고 물어봤다. 알고 보니 한 명씩 고개를 기울이는 사진을 찍자고 말했었는데 나 혼자 고개를 꺄끗이 들고 사진을 찍었었다.

나는 진심으로 못 들었는데 너무 억울했다!

내가 마을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을 꼽자면 산책일 것이다. 산책은 내 쉼터이자 도피처였으며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체였다. 농장 일을 끝낸 날과 주말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산책을 시작했다. 나중에는 주말 같은 경우 오전 산책, 오후 산책, 저녁 산책 총 세 번을 다녔다.

낮에는 주로 혼자 다녔는데, 항상 노래를 들으며 걸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노래도 부르고 몸을 흔들기도 하며 지겹지 않게 걸을 수 있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지치면 절 학교나 근처 파고다에 잠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마을 사람과 함께 낚시하러 갔던 작은 호수 가는 길을 기억했다가 혼자 다시 가기도 했다. 안으로 좀 들어가야 나오는 곳일 뿐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이라서 호수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나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그저 발 가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 좋았다. 집 멀지 않은 곳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길을 걷다 문득 정신 차려봐도, 혹은 ‘이렇게 갔으니까 이제 어떤 곳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골목을 딱 나오면 항상 도서관이 눈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모두 라이브러리로 통하는 이 곳을 나는 ‘라이브러리 지옥’이라고 불렀다.

산책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나는 산책하며 만나는 사람들, 지나가는 오토바이, 심지어 집안에서 나와 눈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짧은 질문도 했다. ‘배뚜아 말롤레?(어디 가요?)’ 혹은 ‘샤 비비라?(밥 먹었어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만 해도 웃으면서 대답해주신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회화 능력 부족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것은 관계 형성을 위한 내 작은 노력이었지만, 큰 애정으로 돌아왔다. 나는 산책을 하다 감사하게도 몇몇 주민 분들 집에 초대받기도 했고, 아보카도 나무 따는 것을 쳐다보다 말 한 마디 했을 뿐인데 아보카도를 받기도 했으며, 친해진 꼬마를 집에 데려다 주고 먹을 것도 받았었다. 산책을 하며 1을 주면 100을 돌려받는 마을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말 걸어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 주민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것만을 바라고 생활을 한다면 마을에서 즐겁게 지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다못해 1분 거리의 슈퍼만 가도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앉아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것이 나의 노력이었다. 물론 당연히 어색하고, 한 번 만났는데 ‘우린 이제 절친!’ 이런 것도 아니어서 매일매일 마을 주민들과 관계를 위해 힘썼다.

‘2주 보고 다시 안 볼 사람들’이라는 생각보다, ‘2주라는 시간밖에 없으니 최선을 다해 친해 져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원래의 내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한국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겠지만 미얀마와 민카 마을에서는 현지인들과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 하고 싶었다. 내가 마을에서 행복했던 큰 요인 중 하나는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산책을 통해 내 행복 게이지를 차곡차곡 쌓았었다.

저녁 산책은 주로 다른 팀원과 같이 걷다, 안전상의 이유로 끝에는 알렉스와 함께 다녔다. 저녁 산책은 걸로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소화도 시키고 쏟아질듯한 별도 보았다. 하늘의 별을 보며 ‘지구가 둥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잘 모르는 별자리를 찾아보기도 했다. 특히 ‘너의 이름은’이라는 영화와 그 OST인 ‘sparkle’이 자꾸 생각나서 감성에 젖었다. 저녁 산책을 하다 잠시 앉아있는 도중 별뿔별을 보았는데, 너무 빨리 떨어져 뒤늦게 소원을 빌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별이 무수한 하늘 아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웃었던 모든 시간들이 진심으로 행복했다. 한국에서도 오래 생각날 것 같다.



# 미얀마의 문화- 파고다



계단 오르다 지쳐서 쉬고 있는 중...

꺄로에서 양곤으로 돌아오는 날, 파고다 세 곳을 들렸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산 정상에 위치한 파고다로 끝없는 계단과 계단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서 내가 이 사원에 다녔다면 계단 오르다 신앙심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도착지가 너무 멀리 보이니 계속 힘이 빠져 만약 사원을 보지 않고 계단만 보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 혼자 실행해 보았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게 돼서 나는 아직 열반에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지친 종아리를 이끌로 도착한 파고다는 사실 그닥...(이하 생략)



드디어 도착!



쉐우민 파고다 앞에서 ~~  
발등이 신발 모양으로 타서 알록달록하다

두 번째로 갔던 곳은 군인들이 차량을 검사하는 삼엄한 경비의 동굴 파고다(쉐우민 파고다)였다. 축축한 바닥을 맨 바닥으로 걸으며 갔던 동굴 안에는 정말 많은 불상들이 있었는데, 동굴 형식과 다양한 모양의 불상들이 새로웠다. 모자를 쓰고있어 위를 못보고 머리를 부딪혔는데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다.

마지막으로 파고다 강행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에서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절 안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콩 튀김(빠쭌)와 차를 주셨다. 둘 다 내가 좋아해서 야금야금 먹고 있다가 불상에 금 박지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만달레이에 있는 황금 바위(짜익피요)사원은 남자만 들어가서 바위에 금을 붙일 수 있지만 여기는 여자도 붙일 수 있다고 해서 미얀마가 아니면 못 할 경험이라는 생각에 한 번 해보았다. 불상에 금박을 붙이며 우리 가족의 건강과 내 소원을 빌었다.

## 미얀마 문화 - 차, 커피, 그리고 샐누들

마을에서 나는 '배고픔'이라는 상태를 잠시도 느끼지 못할만큼 끊임없이 먹고 마셨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마셨던 차와 커피, 그리고 이 곳이 원산지인 샐 카우췌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겠다.

나는 한국 집에서도 차를 자주 마시는 편이지만, 껀로에서는 생수 대용으로 항상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미얀마어로 '러페엣'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내 생각엔 녹차 같은데, 인터넷에 쳐보니 러페엣은 연유를 탄 홍차라고 한다. 하지만 절대 홍차는 아니었다.) 나는 이 차가 맛있어서 호록호록 굉장히 많이 마셨다. 살짝 씹쓸한 맛이 나지만 마시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서, 기름 많은 미얀마 음식에 찔떡이었다. 대신 뜨거워서 바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 마시기 전 미리 컵에 따라놓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와야지 적당하게 마실 수 있어 인내심이 필수였다.

마을 와서 커피도 꽤 마셨는데, 특히 옆집 할머니께 놀러 가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권해 커피를 두 잔씩 마셨었다. 양곤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단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는데, 할머니 집 커피는 씹쓸한 맛이 나는 좋은 샐 커피였다. 하지만 씹쓸한 커피는 내 입맛에 맞지 않았다.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껀로에서 좀 자주 마셨더니 결국 나중에는 질려버렸다. 양곤 돌아와서도 이제 커피 보면 껀로에서 자주 마셨던 장면이 떠올라 마시기 싫어졌다...

알고 보니 샐이 우리나라 '보성'처럼 차와 커피로 유명한 곳이었다. 맛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 마시고 싶어 찻잎과 커피를 샀다. 사실 커피는 원두 향에 홀려서 샀는데, 캐리어에 넣어 놓으니까 물건 꺼낼 때마다 안에서 좋은 커피 냄새가 난다.

처음 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착하기 전에는 '샐에 왔으니까 샐 누들 자주 사먹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도착하고 보니 마을에는 파는 가게가 없어 자주 먹지 못했다... 신기하게 양곤의 샐 누들은 소면 같은 얇은 면이지만, 샐에서의 샐 누들은 넓은 칼국수 면이라서 더 포만감이 있었다. 양곤 가게에서는 샐 누들 한 그릇 먹어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적어서 넓은 면이 훨씬 좋았다. 특히 화진 언니는 샐의 샐 누들을 정말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땅콩이 많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나는 땅콩 반대파라서 땅콩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샐 누들이 더 맛있는 것 같다.

# 꺄로에서 돌아오는길

꺄로에서 파고다 속성 코스를 끝낸 후, 다시 양곤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 너무너무 버스에 타기 싫어 ‘남은 3개월 민카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ππ’ 라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탈 수밖에 없었다.

버스에 알렉스와 같이 앉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은 우리와 달리 알렉스는 여기저기 한참을 전화하고 나서야 지친 목소리로 ‘삐비-’ (끝났다) 라고 말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를 위해 2주 동안 너무 수고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푹 자라고 말해줬다. 몸을 이리저리 구겨 자며 8시간을 달린 후 양곤에 도착했다. 새벽이었지만 후덥지근한 날씨가 나를 반겼다. 몽롱한 정신으로 짐을 두고 서 있는데 알렉스가 또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걸더니 난처한 목소리로 ‘YMCA차가 우리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하는데 기사님이 자느라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길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결국 택시를 타고 YMCA에 도착했다. 이 일이 큰 후폭풍을 가지고 올 지 모른 채로 모두 잠이 들었다.

자고 일어난 후 산드라 간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택시 사건 때문에 알렉스가 자신과 Dr.다니얀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알렉스에게 혼난 이유를 물어보니 ‘왜 마음대로 택시를 타고 왔느냐’를 중심으로 시작해(돈은 알렉스 사비로 냈다.) ‘너는 2주 동안 꺄로에서 놀고 먹고 오지 않았느냐’(알렉스 혼자 우리 5명의 모든 상황을 신경 쓰느라 누구보다 제일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너 머리 왜 이렇게 길어’(진짜 유치하다) 까지 모든 것을 트집내면서 혼내다가 화난 알렉스가 의리 빼면 시체인 친구 묘지와 반항의 의미로 삭발을 단행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우리는 분노하면서 알렉스와 묘지를 위로했다.

무슨 일이든 자기는 강해서 괜찮다며 항상 ‘야바데’(괜찮아)를 외치던 친구들이 슬픈 표정으로 ‘넌네 마야부’(조금 안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그 슬픔의 무게가 느껴져 정말 마음이 아팠다. 결국 우리는 묘지, 알렉스와 같이 가던 보육을 묘지랑만 다니고, 알렉스는 YMCA에 남게 되었다.

# 걸로 넘서리

Storied by 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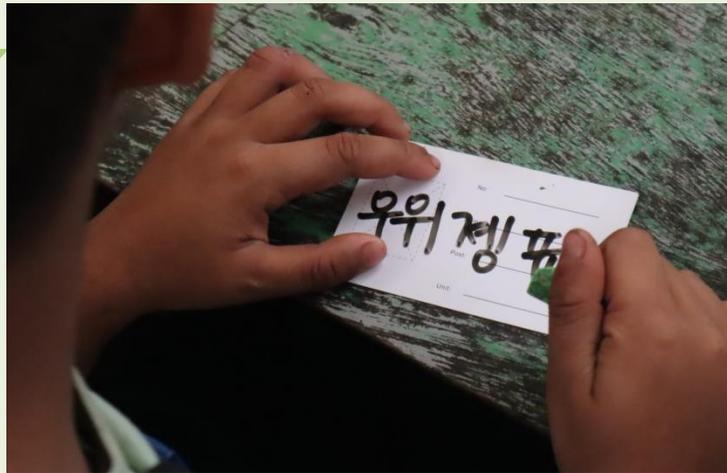
1 시간 넘는 산길을 걸으면 나오는 산 속의 학교,  
운동장 돌담 아래로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들  
과의 보육을 11월 5일 시작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상상치 못했던 환대에 몸 둘 바 몰라 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솔직히 샐리로 오기 전 ‘나 보육 권태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손을 잡아오면서 씩 웃는 아이들을 보니 그런 권태기가 조금 걷히는 것 같기도 했다. 보육이라는 과정이 힘든 거지 아이들이 싫은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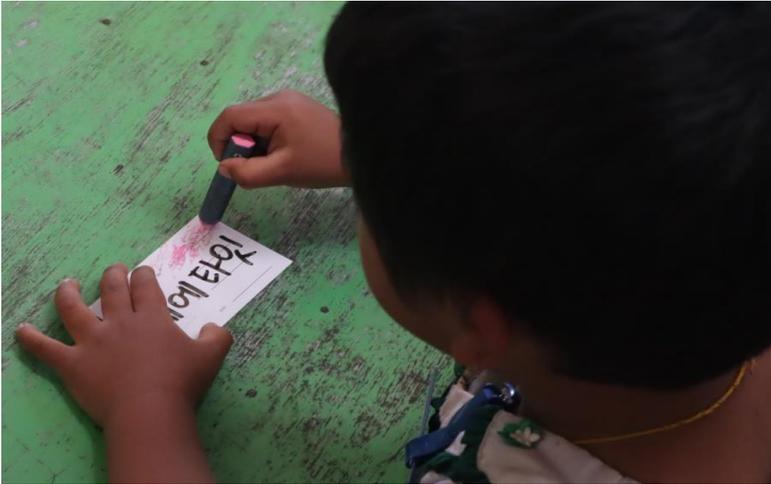


첫 시간, 어색하게 서서 자기소개를 끝내자 아이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한 보육 프로그램은 이름표 만들기. 양곤 보육 때도 가장 아쉬웠던 점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아이들 수가 많은데다가 낯선 언어로 쓰여진 이름을 외운다는 게 조금 벅찼기 때문이다. 특히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 나에게서는 더더욱! 이번에는 짧은 기간 동안밖에 함께 하지 못하니 더욱 가까워지고자 이름표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우리는 미얀마어로 적힌 이름표를, 아이들에게는 한글로 적힌 이름표를 달아 줬다. 내 이름표를 보고 화진? 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을 보니 미소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었다.



이름표에 이름을 다 적은 후에는 꾸미기를 했다.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펼치자 덩석 잡은 것과는 다르게 선뜻 꾸미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가 먼저 우리 이름표를 색칠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자 아이들도 우리를 따라 꾸미기를 시작했다. 조그마한 손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미소가 나오더라.

이름표 만들기가 끝나고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오늘의 급식(닭죽)을 나눠주고 있었다. 잼싸게 참여해서 닭죽을 찻기도 하고, 도시락에 나눠 주기도 했다. 중간에 연기가 너무 매워서 기침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





남은 닭죽과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은 후 우리에게 주어진 점심 자유 시간. 껄로 보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이다. 운동장을 어슬렁거리다가 자연스레 아이들과 놀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장을 뱅글뱅글 돌기만 하다가 강강술래로, 동대문을 열어라로 이어졌다. 아이들 수도 순식간에 늘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꽤 많은 인원수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다. 단순한 놀이인데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자신감이 붙어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할까?’ 한마디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까지 도전!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짧게 고민했던 게 무색하게 재미있게 놀았다.

남은 닭죽과 아이들이 미얀마 놀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동요를 부르면서 돌다가 갑자기 자리에 주저 앉는, 우리나라의 그대로 멈춰라와 비슷한 놀이였는데 처음에 이해하질 못해 내가 걸렸다. 벌칙으로 춤을 춰야 한다고 해서 머쓱하게 몽키 댄스를 쳤다... 계속 뛰어다니다 보니 지쳐서 쉬고 싶었다. 와나매! (쉬자!)를 외치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내 손을 끌어 수돗가 옆 돌 위로 데려갔다. 거기 앉아서 쉬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꽃을 꺾어서 내 머리에 꽂아줬다. 힘들긴 힘든데 아이들 행동 하나하나에 심 없이 웃었던 시간이었다. 심지어 꽃이 바닥에 떨어지자 수돗가로 달려가서 씻어와 다시 나한테 주기까지 했다. 쏘 스윗... 나중에 이 이야기를 자랑했더니 모든 팀원들한테 자상했더라... 잘 지내니, 쏘하티... 보고 싶네...

양곤에서부터 쪽 진행했던 색 & 과일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양곤 보육에서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튼튼하게 보완해서 준비했다.

원래는 보육 자료를 종이 낱장으로 들고 다녔는데, 분실했던 적이 있어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스케치북에 싹 새로 그려 정리했다. 스케치북만 잘 챙기면 안심! 그리고 색칠 종이에 원래는 과일 이름을 영어로만 써 넣었지만, 산 보육을 준비하며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더 수월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미안 마어를 추가했다.

양곤에서 여러 번 해서 진행에 수월했던 프로그램이라 산에서는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었다. 이때 사진을 찍지 못해 추가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대신 보육 때 우리의 소중한 낙이었던 슈퍼에서의 사진을 넣었다. 학교 아래의 마을에 있는 슈퍼에서 간식 구경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쉬었던 짧은 시간이 큰 행복으로 남았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획했던 PCM을 시작했다. 총 손 씻기, 양치, 소방, 교통 (+재난) 네 부분으로 구성된 우리의 보육 PCM의 첫 시작이라 떨리는 마음 반, 긴장 반으로 출발.

제일 먼저 시작된 손 씻기는 언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를 설명한 후 WHO에서 발표한 손 씻기 6단계를 설명했다. 화진과 현아가 그린 스케치북 속 그림을 보며 혼자 감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 앞에서 손 씻기 동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 해서 놀랐다. 주의가 조금 산만해질 법하면 엄한 목소리로 집중!을 외치시는 선생님이 계신 덕분도 있겠지만, 일단 아이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정말 고마운 부분이다. 쓰다 보니까 보고 싶네. 잘 지내니, 애들아...

손 씻기가 끝나고는 나랑 한희가 준비한 양치 부분을 했다. 별거 아닌 상황극에도 까르르 웃어주는 아이들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힘차게 출발. 양치는 하루에 3번, 3분 해야 한다는 것과 양치 순서를 설명했다. 직접 시켜보기도 했는데, 다른 아이가 나와서 할 때 다른 아이들도 뚫어져라 쳐다보는 놀라운 집중력에 또 다시 놀랐다.

점심 시간 직전, 아이들 손을 씻겨 주며 보육 때 했던 손 씻기 6단계를 그대로 함께 했다. 작은 세면대 앞에 조르르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참 귀여웠다. 손을 다 씻으면 교실로 들어가 도시락을 꺼내는 모습도 귀여웠고... 아이들 손 다 씻기고 우리 손도 씻은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웃음이 나왔다.





소방 PCM은 설명, 실습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코와 입 가리기, 연기를 피해 허리 숙이고 대피하기를 아이들과 함께 해 보았다. 사실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신이 나는 아이들과 (그냥 뛰기만 해도 신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 움직이면 실습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잘 따라주었다. 보육 내내 감탄과 또레! (최고!)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다.

Storyed by 화진

## 대망의 교통 보육!

준비하면서도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했는데 실제로 할 때도 제일 재미있었다.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에 길을 건너야 하는지 등을 설명했다. 아이들의 관심을 보다 쉽게 끌기 위해 우리가 직접 상황극을 하며 보여 줬는데 하는 우리도 재미 있었다.



위의 사진은 우리 팀이 되게 귀여워 보여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인데, 한희가 어른 역을 맡고 현아가 아이 역을 맡아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통 교육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각각 차, 어른, 신호등을 맡아 아이들이 직접 길을 건너보게 했다. 길을 건널 때는 어른과 함께 건너야 한다는 설명과 진행의 수월함을 위해 아피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손을 잡고 건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 두 명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오더니 둘이서 하고 싶다고 했다. 이때의 부딪힘 때문에 교통 보육이 더욱 기억에 남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서툰 외국어, 거기에 빨롱어라는 큰 장벽이 있었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어 아이들끼리도 이 활동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더 의욕이 샘솟기도 했다. 마음 속에 묶여 있던 걱정의 매듭이 탁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잘 참여해준 아이들,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배역을 맡아 충실히(?) 연기해 준 팀원들한테도 고맙고.

모자이크를 함께 만드는 시간을 보냈다.

원래 동물에 대해 배우고, 연장선으로 모자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학교가 마을 축제 때문에 하루 쉬는 바람에 보육 회차가 하나 줄었다. 결국 모자이크만 하기로 결정하고 재료를 챙겨 갔다. 현아와 하진이가 코끼리와 닭을 그렸는데 또 잘 그렸길래 속으로 혼자 감탄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우리가 더 꼼꼼하게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자, 라는 대화를 나누고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리보다 아이들이 더 잘게 찢어서 잘 붙였다. 내가 가장 열심히 한 건 색이 좀 더 골고루 들어가게 아이들의 손에 들린 종이 색을 바꿔 준 것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행복의 비명을 지르면서 보육을 진행했다.

수월한 진행도 좋았지만 더 좋았던 건 오후의 교실 안에 옹기종기 둘러 앉아 다양한 색으로 큰 백지를 채워가는 아이들이었다. 그 속에 하나 될 수 있는 온 좋은 기회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했다.



Storied by 화진



그렇게 탄생한 멋진 작품들.

색 & 과일 수업 때 완성한 색칠 공부 그림들과 함께 벽에 붙여 두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을 남길 수 있어 좋았다.

풍선 아트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산 풍선이 풍선아트용 길쭉한 풍선이 아니라 토끼 귀가 달린 풍선이었다는 점이였다. 저녁을 먹고 풍선에 바람을 넣었는데 갑자기 토끼 귀 두 개가 띠용 튀어나왔다. 모두 경악 및 웃음을 참지 못했다. 결국 회의 끝에 모자와 칼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 귀여운 토끼 얼굴이 달린 팔찌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풍선을 너무 크게 불면 쉽게 터져서 적당한 크기로 부는 역할, 토끼 얼굴 그리는 역할, 손목에 묶어주는 역할 이렇게 셋으로 나눠 진행했다. 혹시 손목에 묶을 때 너무 조여서 아픈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무사히 우리 반 아이들 손목에 귀여운 토끼를 하나씩 달아 주는 데 성공! 손목을 흔들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어쩌면 풍선을 잘못 사 온 게 마냥 실수는 아니었구나 싶었다.





꺄로에서의 보육은 지친 마음으로 시작해 활기차게 끝났던 시간이자, 내가 그때 지쳤다는 이유로 그냥 흘려 보낸 거 같은 시간이기도 하다. 팀원들한테 보육 힘들다고 정말 많이 징징거렸다. 보육을 하러 가려면 기운이 빠지고, 막상 가서 아이들을 보면 좋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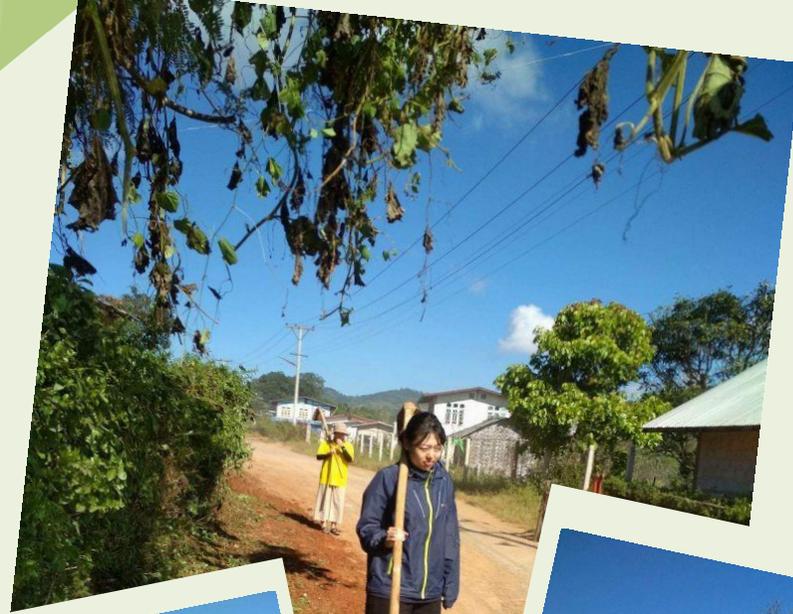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지 못할 기억을 많이 만들어 준 곳이다. 낯선 외국인이라 신기해서 더 많이 다가와 준 것도 있겠지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와 준 용기에 고맙고, 우리랑 잘 놀아준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수천 번 하고 싶다. 보육 활동을 끊임없이 도와주신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쓰다 보니까 다시 꺄로로 가고 싶다.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한 시간이 넘는 산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줬던 힘 중에는 보육에서 내가 느꼈던 행복도 있는 것 같다.

**꺽**로에서는 보육, 농장 크게 두 가지 활동을 진행했었다. 하루 보육, 하루는 농장.

집 근처의 농장까지 꺽이를 지고 걸어가 아보카도 묘목을 심는 시간을 보냈다. 꺽이가 보기에는 가벼워 보였는데 막상 땅을 파니 힘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재미있기도 했다!

팀원들이 땅을 팔 때 옆에 가서 이게 제대로 파는 거냐며 시비를 거는 재미도 나름 쏠쏠했다.

묘목을 심을 때 땅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파야 한다는 점과, 흙으로 덮어 고정시켜줘야 한다는 점을 새로이 알 수 있었다.





아보카도 묘목을 다 심은 후에는 고추를 땀다. 꼭지를 따면 안 된다는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땀는데 솔직히 몇 번 꼭지도 같이 따서 혼날까 봐 조용히 버리기도 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딴 고추들은 할머니가 말리신 후에 직접 갈아 고운 빛깔의 고추 가루로 다시 태어났다.

Storied by 화진



열심히 일하는  
팀원들의 모습.

나만 보기에는 아깝다!



# [Part 2] Visa Trip in BANGKOK

11월 17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방콕 돈무암 공항에 도착했다.  
정말 비자 트립을 올 줄은 몰랐는데  
어느새 태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도착해있는 내가 신기하기도 하고 설렘다.  
3박 4일, 사실상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태국을 돌아다니기 위해  
우리는 미리 파타야 수상레저를 예약하고 이것 저것 일정을 짜놓았다.  
꺄로에 다녀온 직후라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됐다.



## BANGKOK D+1 11.17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닥터 따냥, 산드라 간사님과 함께 공항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 가까워졌을 때 산드라 간사님께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배가 고팠던 우리들도 쪼르르 따라 들어갔다. 한국 못지 않은 다양한 도시락, 빵, 라면까지 다양한 음식들 앞에서 행복한 고민을 시작했다. 고민 끝에 한국 라면을 하나 집어 들었는데 닥터따냥님께서 아피들이 고른 것들을 감사하게도 사주셨다. 덕분에 맛있게 라면을 먹고 배 든든히 숙소로 향할 수 있었다.

방콕에서는 여자 3명 중 한명이 산드라 간사님과 따냥 에에와 한 방을 써야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쓰기로 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해 서둘러 짐을 풀고 있는데 산드라 간사님께서 오늘은 혼자 방을 쓰고, 내일부터 같이 쓰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산드라 간사님이나 팀원들과 함께 방을 쓰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분리되어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던 때여서 내심 기분이 좋았다. “오늘 밤에 가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열심히 혼잣말도 하고, 노래도 실컷 틀고, 문 열고 샤워하고, 가끔은 춤도 추며 불도 마음대로 켜다 켜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반가웠다. 방콕에 늦게 도착한 바람에 나만의 시간을 오래 즐기진 못했지만 이런 내 모습이 웃기기도 하면서 나름 행복했던 첫 날밤이었다.

## BANGKOK D+2 11.18 *Storied by 현아*



사실 나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껄로외 자연 환경은 우리 집과 많이 닮아 있었고, 떠 누 할머니를 보면 우리 할머니가 떠올랐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 집이 떠올랐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았기에 더더욱 가족이 보고 싶었다. 양곤에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나의 향수병은 시작되어 버렸다. 가족, 친구, 고향집, 그리고 제 2의 고향 서울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그렇게 향수병을 치유하지 못한 채 방콕에 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기가 바로 리틀 서울인 것이었다. 둘째 날 아침,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탑승구가 지상에 있는 모습이 1호선과 같았고 지하철은 9호선처럼 깔-끔 그 자체였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누비던 나의 모습을 추억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는 터미널 21이라는 복합 쇼핑몰을 찾았는데 이 주변에는 한인 거리가 위치해 있었다. 곳곳에서 보이는 익숙한 한국어들, 한국 식당을 보며 기분이 좋아 졌고 마침내 들어간 터미널 21 안에는 서브 웨이, 카페, 옷 가게, 앤티 앤스까지... 이곳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신도림 디큐브였고 제 2의 고향을 찾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잠깐 들른 이 곳에서 폭풍 먹방을 찍기 시작했다. 터미널 21 안에는 푸드 코드가 위치해 있었는데 한 메뉴당 2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본능에 이끌려 한 그릇, 두 그릇 해치워 나갔고 후식 아이스크림과 생과일 주스도 마셨다. 결국 터미널 21과 사랑에 빠진 우리는 다음 일정을 조정해가며 오래 머물렀다.



원래 터미널 21을 잠깐 들렀다 왕궁을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늦어졌기에 왕궁을 다른 날로 미뤄두고 방콕의 주말 시장인 짜또짜으로 향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지만 일단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실내인 곳도 있어 비를 피할 수 있었다. 짜또짜은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상상 속의 “시장”이었다. 사람이 북적북적 부대끼고 다양한 물건을 파는 마치 동대문 시장같은 모습이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인 건 여권 케이스였다. 옷없이 알맹이만 달랑 들고 다니는 느낌이라 하나 장만하고 싶던 터였다. 가죽과 팬던트를 직접 고르고, 이름을 새기며 나만의 여권 케이스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태국의 기념품 필수템-! 과일 비누도 사고 한희오빠와 화진언니는 열심히 코끼리 바지를 찾아다녔다. 괜히 가게에 들어가 말린 망고를 시식하고 맛있는 빠에야,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사먹기도 했다. 슬슬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우리는 까오산 로드로 이동했다.

까오산 로드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해 기사님께 미터기 작동을 부탁드렸다. 미얀마에서는 미터기가 있는 택시를 한번도 못봤기에 미터기가 괜히 낯설었다. 낯선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동전이다. 미얀마에는 동전이 시장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아 우리는 지폐만 사용해왔어서 태국에서 오랜만에 만진 동전은 반가우면서도 어색했다. 생각보다 내가 미얀마에서의 삶에 많이 녹아 들었음을 깨달았다. 까오산 로드에 도착하고 나서는 바로 맥도날드로 향했다. 다리가 피곤해 쉴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태국 맥날의 명물 콘파이를 맛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맥날 입구에서 “I love khaosan” 피에로 아저씨와 함께 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따뜻한 콘파이를 맛있게 먹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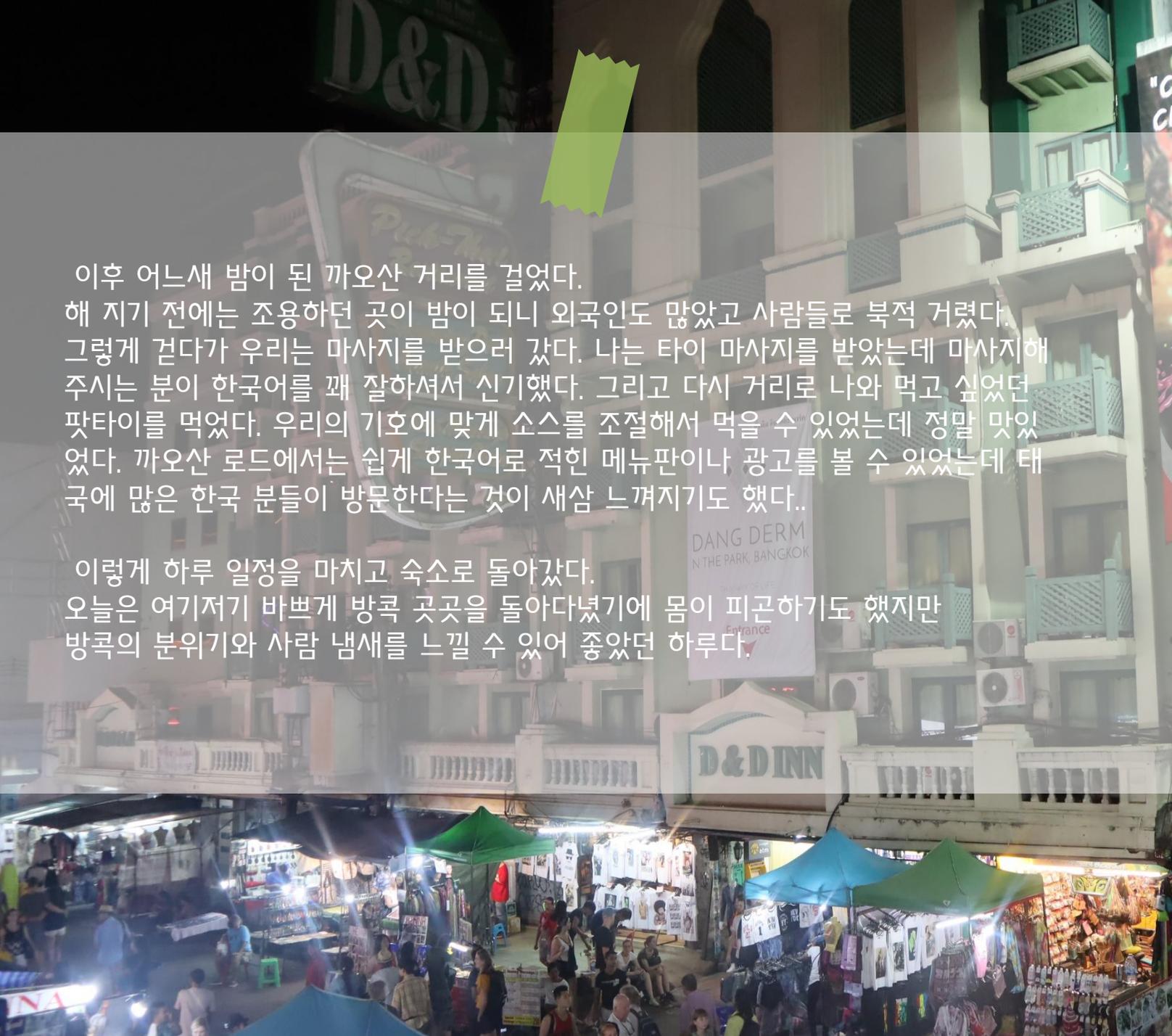


이후 어느새 밤이 된 까오산 거리를 걸었다.  
해 지기 전에는 조용하던 곳이 밤이 되니 외국인도 많았고 사람들로 북적 거렸다.  
그렇게 걷다가 우리는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나는 타이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해  
주시는 분이 한국어를 꽤 잘하셔서 신기했다. 그리고 다시 거리로 나와 먹고 싶었던  
팟타이를 먹었다. 우리의 기호에 맞게 소스를 조절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정말 맛있  
었다. 까오산 로드에서는 쉽게 한국어로 적힌 메뉴판이나 광고를 볼 수 있었는데 태  
국에 많은 한국 분들이 방문한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기도 했다..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다.  
오늘은 여기저기 바쁘게 방콕 곳곳을 돌아다녔기에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방콕의 분위기와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어 좋았던 하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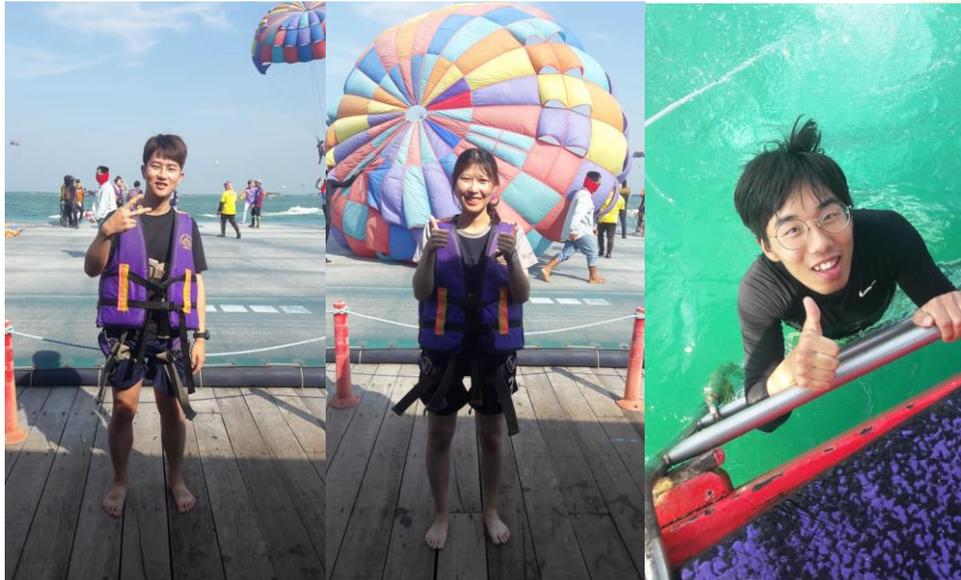
Storyed by 현아



# BANGKOK D+3 11.19

셋째 날은 파타야 수상레저를 예약한 날이다.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로 직접 픽업하러 오셔서 2시간 정도 거리의 파타야를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다들 피곤했는지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다.

집결지에서 미얀마에 온 이후로(9월) 가장 많은 한국인들을 마주했다. 마음속으로 “어? 한국인이다.”를 외치고 낯설어 하다가 사실 나도 한국인임을 깨달았다. 내 옆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우리는 페러세일링, 씨워킹, 제트스키를 체험했다. 옆에 보이는 정직한 사진들은 가이드 분이 증사찍듯이 한 명 한 명 열심히 찍어주신 결과물이다.

페러세일링을 하며 낙하산에 매달려 탁트인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씨워킹을 할 때는 스펀지 밥의 다람이가 입는 우주복같은 헬멧을 착용하는데 완전히 밀폐된 것이 아닌데도 신기하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조개를 들고 있으니 물고기가 몰려들었고 가까운 눈 앞에서 물고기 떼를 보니 신기했다. 바다에서는 생각보다 나의 움직임이 느려져 내 몸을 조절하기가 어려웠고 헬멧에 혹여 문제라도 생길까 무서웠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보는 경험은 새로웠다.

Storied by 현아



다같이 바나나 보트를 탔는데 우리가 중심을 잘 못 잡는 건지, 일부러 그러신 건지 보트가 3번이나 뒤집혔다. 나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은 나를 싫어하기에 보트가 뒤집힌 후 구명조끼에만 의지한 채 바다 위에 등등 떠있는게 문득 무서웠다.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손에 손을 잡고 힘겹게 다시 바나나 보트에 오르며 잠깐 전우애를 느끼기도 했다.

게 눈 감추듯 후르륵 오전이 지나고서야 파타야의 바다를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 정말 그림 같았다. 어렸을 때 그렸을 법한 상상 속의 맑고 푸른 바다였다. 어딘가가 막히고 백백한 회색의 도시가 아닌, 탁트인 자연의 색에 둘러싸이니 잡념이 사라지는 듯했다. 시원하게 솟아오른 꺾로의 산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다.



여러 가지 수상 레저를 체험하고, 바다 생물을 가까이서 보는 경험은 신선하고 즐거웠다. 각자의 역할이 확실히 정해진 숙련된 현지인분들의 안내 하에 일정한 순서와 규칙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파타야의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 됐음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며 일정을 소화하며 마음이 조급해졌고 가끔은 관광 공장에 와있는 느낌도 들었다.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여유롭게 천천히 이곳을 음미하면서 나에게서는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이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파타야 관광 수요자로 이곳에 와있지만, 무언가 자꾸 마음이 불편했다. 관광객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는게 관광 산업 발달의 장점이겠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이 존재하기에 필리핀의 보라카이 사태를 떠올리며 파타야가 걱정되기도 했다. 모순되는 나의 모습이 혼란스럽다.



까르륵~ 바닷가의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자세히 보니 파도가 오면 피하는게 재밌어 신나게 웃고, 가끔 못 피해도 친구를 보며 배시시 웃는다. 귀여워서 눈길을 땔 수가 없었다. 아기들은 몰랐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 쪽을 바라보며 아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널서리 아기들을 본 지 너무 오래됐다. 나에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힐링이고 에너지의 원동력이었는데 11월은 마오플라바, 라인따야, 양곤Y, 쉐피타 아기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 어서 다시 널서리를 가고 싶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우리는 바다에서 놀았다. 그저 파도에 몸을 맡겨 둥둥 떠있고, 바닷속에서 앞구르기나 뒷구르기를 시도하며 재밌게 놀았다.

오후 2시, 다시 보트에 올랐고 스노쿨링 장소에 도착했다. 요상한 스노쿨링 마스크를 쓰고 바다에 들어갔다. 얼굴만 집어넣고 바닷속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높은 곳에서 바다를 관망하는 느낌이었는데 산호초부터 물고기 떼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다. 바닷속은 고요했고 나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괴롭혔던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다. 그냥 그렇게 물과 함께 오래도록 있고 싶었다.

그렇게 파타야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잠깐 쉰 후에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하지만 우리 중 하진언니를 제외하고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미리 환전을 했어야 했는데 남은 바트가 별로 없었다. ATM 기에서 돈을 뽑으려니 수수료가 한국돈으로 거의 8000원이었다. 이리 저리 헤매다 지하철 환전소로 들어갔는데 1분 차로 문이 닫혔다. 너무 아까웠다.

결국 동전을 탈탈 털고 모두 하진님에게 대출하기로 했다. 운 좋게도 역 주변에서 복합 쇼핑몰을 발견했고 그곳에는 푸드코트가 있었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해결하고 나는 앤티앤스 프레첼까지 사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했다. 나는 아쉬운 마음에 설록까지 보고 잤다.(보다가 잠들.)

## BANGKOK D+4 11.20



마지막 날 아침이다. 산드라 간사님과 오후 4시까지 공항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숙소를 떠났다. 둘째 날에 못갔던 왕궁과 또 다른 복합 쇼핑몰인 씨암 파라곤 중에 고민했는데, 상의 끝에 씨암 파라곤으로 결정됐다. 사실 태국에 와서 쇼핑보다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볼 수 있는 문화재나 유적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왕궁을 꼭 가보고 싶었지만 마지막 날이라 짐도 많았고 피곤해하는 팀원들도 있어 짐도 맡기기 편하고 도보 이동도 적은 씨암 파라곤을 가는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왕궁이나 왓아룬은 가보고 싶은 장소라 다음에 태국을 방문한다면 꼭 가기로 스스로 다짐했다.

씨암 파라곤은 씨네 21과 비슷한 곳이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폭풍 먹방을 했는데 태국의 유명한 팟타이 체인점에 갔다. 이름은 까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인정해준다. 미얀마에 와서 밀크티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태국에도 밀크티 가게가 많아 하나 사들고 씨암 파라곤을 구경했다. 맛있는 디저트들도 사고 묘지, 알렉스에게 줄 말린 망고, 코코넛 칩, 팟타이도 사며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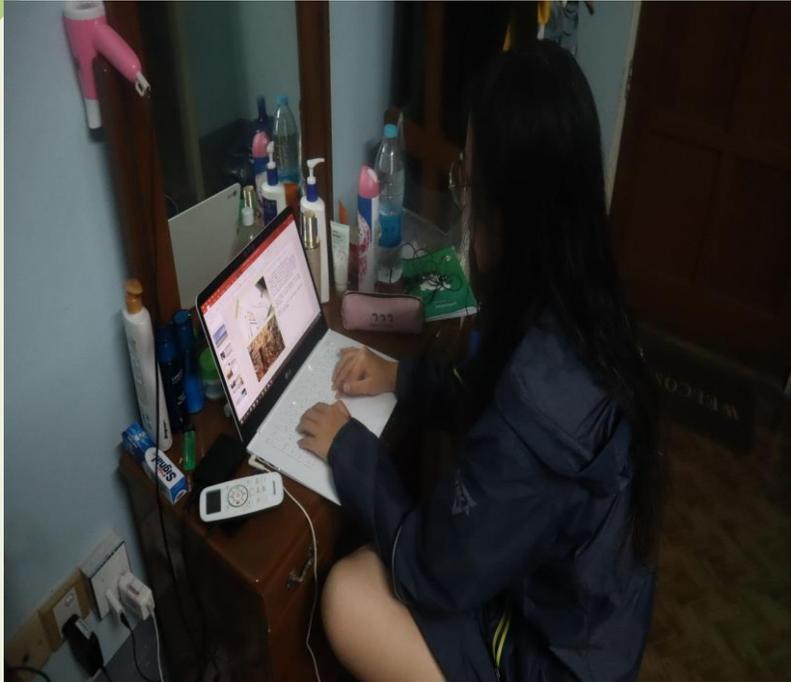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쉬다가 공항 검색대로 향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 2의 명화진 수분크림 사태가 일어났다. 화진언니는 한국에서 출국할 때 새 수분크림을 검색대에서 뺐겼는데 이번에는 하진언니가 헤어팩과 린스 산 것을 깜박해 처참히 버려졌다. 린스는 나랑 같이 산 거였기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에 마음이 쓰라렸지만, 헤어팩도 뺐긴 그녀의 슬픔이 너무 커 보여 태연한 척했다. 이후 비행기에 올랐고 어느새 한국 향수는 많이 사라져 있었지만 방콕을 떠나는데 아쉬웠다. 에에와 열심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 양곤에 도착했다. 우리는 YMCA로 향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나도 떠나온 아쉬움보다 지금에 집중하고 행복해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다짐하며 잠에 들었다. ☺

Storied by 현아



[Part 3] 다시, 일상으로

# 중간 평가 준비



비자트립 이후 일상에 돌아온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시원했던 껄로와 방콕에서의 도시적인 삶을 지나서 시작과 같은 양곤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12월이 된 양곤도 이제 조금은, 아주 조금은 덥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는 것을 보니 시간이 꽤 흘렀음을 느꼈다.

껄로를 가기 전 바쁘게 PCM보고서와 10월 보고서를 만드는 데에 시간을 쏟아부어 정신 없던 나날들이 지나간 후에 껄로를 다녀오니, 비자트립을 가야했고 이틀 안에 비자트립 계획서 제출과 함께 투어 예약까지 해야해서 **바쁨의 연속이었다.**

일상으로 돌아와 여유를 맞이하나 했지만 우리에게는 중간평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물론 11월 보고서를 쓰는 지금도, 중간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니 **바쁨의 연속은 곧 보고서의 연속임을 의미한다.**

중간평가에 대한 준비는 생각보다 분주했다.  
 이전부터 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느낌이라 금방 할 것 같았던  
 생각과는 달리 새로운 PPT를 다시 만드는 것은 물론,  
 사진만 가져다 쓸 수 있었을 뿐 영어로 PPT를 제작하다보니  
 한글로 생각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것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발표로 해야 할 생각을 하니 더 정신없었다.

이전 준비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고서를 준비한다고  
 기존에 진행중인 일정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조급하고 벅찬듯한 느낌이 든다.  
 중간평가를 준비하면서 그전 활동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그때의 생각들이 났던 것 같다.

많은 것들을 해왔고 앞으로 이만큼을 더 하면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쉬움  
 과 후련함들이 있는 것 같다.



# ATTI CLUB

Storied by 지훈

돌아오자마자 우리의 첫 활동은 아띠클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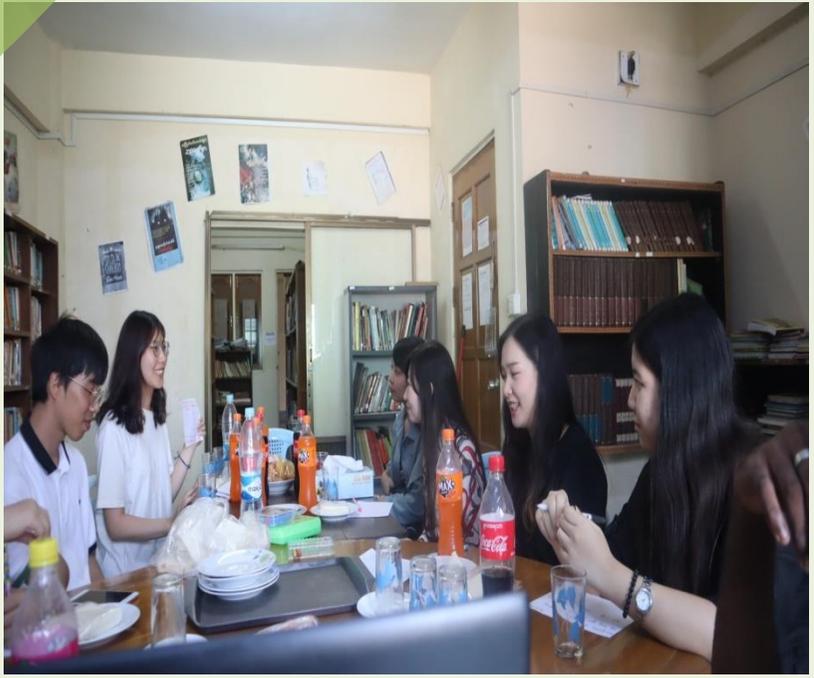
아띠클럽, “ATTICLUB이라는 미얀마청년들과의 동아리” 를  
오자마자 시작하려 했지만

1. 적응기라는 이유로 9월을 넘기고
2. 10월 시간이 되어 진행직전 산 state를 가야 되어서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었어졌었다
3. 세 번째 도전 만에 우리는 아띠클럽을 창설하게 되었다.  
만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고 한국을 너무나 좋아했던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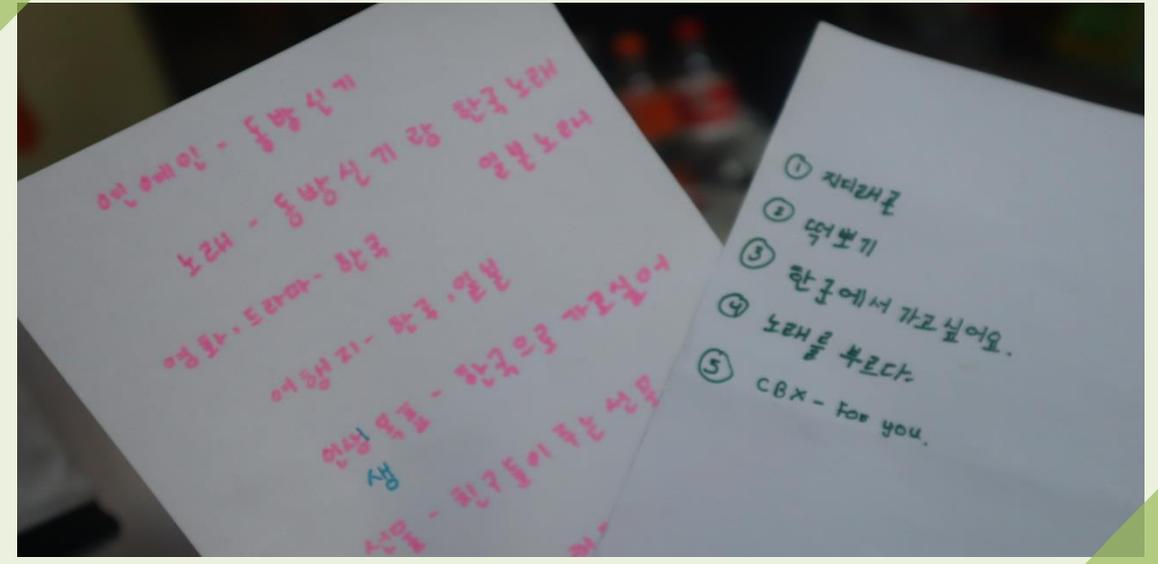
2시간이 30분이 넘게 걸렸던 NUNU  
수줍음이 많던, 또 몇 년 짜 참석중인 BOM MI  
우리들의 첫 손님이자, 우리들의 한국어 번역자 CHIT PYU  
아띠클럽 마스코트 Y직원 PYU TTAN SI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 MYO HLAIN WIN  
우리들의 첫 아띠클럽에 와준 모든 친구들. 기억하고 싶다.



아띠클럽,  
 사실 너무 내 기준에서 생각했던 것 들이었다.  
 우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진작에 했을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와준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자기소개 키워드였다.  
 우리는 친구들에 대해 궁금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 연예인, 올해의 목표 등 목록을 정해서 공유했고 그 중 3개 이상을 꼽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팀원들은 미얀마어로 소개를 해보려고 자기 이름을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함은 물론 글을 적는 것까지 한글로 적는 모습에 너무 놀랐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한국 연예인과 한국 드라마들까지. 고마운 순간들이었다.



서로 이름과 함께 소개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아이 엠 그라운드 게임을 준비했다. 한국인들도 어려울 만한 리듬이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 해주었고 자기소개 게임을 응용해서 이름 쌍기를 미안마어로 해보았는데 너무나도 잘해서 정말 놀랐다.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이야기를 하니 더 친근해진 느낌이 들었다. 서로에게 좋아하는 연예인을 소개해주기 바빴고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각자의 관심을 공유했다.

어제 나온 워너원의 봄바람이라는 곡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되었다는데 나만 업데이트가 늦은 기분, 빈지노의 Relation 이라는 노래가 떠오른다..

트와이스로 하나되는 아띠클럽. (사실 나는 레드벨벳이 더 좋다)



전 세계적으로  
하트는 다 일심동체인 듯 하다.  
손가락 하트가 아무도 없는 건 조금  
아쉽(?) 지만..



누가 봐도 스파이더맨은 저 자세가 맞지 않나 싶지만!!

본격적인 게임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린 팀을 나누었는데  
A팀 B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했다.

각 팀마다 10가지의 제시어를 두고 그 제시어에 대해 떠오르는 동작을  
똑같이 맞추면 성공하는 게임이다.

우리는 한글과 미얀마 어 영어 세가지로 준비하여 진행했는데  
나라, 언어, 문화는 틀려도 연상하는 동작이 비슷할까 궁금했는데  
역시나 우리는 잘 통했다.



처음 우리는 간장물 VS 아메리카노로 준비를 해보려 했지만 비율을 잘 못맞췄을것지만 생각보다 먹을만한 간장물에 훨씬 맛있고 표정을 쉽게 숨기지 못할만한 것을 찾다가 소금물을 선택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 준비한 것은 소금물이라기 보단 이곳에서 설사를 할 때 먹는 물 소독용 가루였는데 (치훈의 물같이 때 받았던 것) 이후 먹어 본 묘지가 먹을 만 하다며 소금을 왕창 가져다 주어 메가톤급 소금물을 제조하여 진행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숨기고 마실 수 있는 건지 나는 한 모금만 마셔도 표정이 일그러질 수 밖에 없는 폭탄음료였는데 같은 팀원이었으니 다행이지 다른 팀원이었으면 절대 못 맞췄을거다.

생각보다 다들 너무 즐거워워서 고마웠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의 연속이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들의 하이라이트는 소금물 VS 물 누가 마셨는지 맞추는 게임이었다.



셀카는 다 얼짱각도가 중요하시다.

그 동안 뭐가 그리 겁났는지, 우리와 시간을 보내주어 너무 고마움과 동시에, 내가 뭐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해준 것일까 왜 나는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까.

미안함에 빠지지 않고 감사함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 만날 순간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꼭꼭 눌러담아서 만날 날들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소금물 진짜 맛없는데 표정 똑같은 거 진짜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겨도 상품없는데)



2번째 아띠클럽 만남도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진 아띠클럽 멤버들에 우리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첫 모임때 세 명이었던 아띠클럽 멤버가 이번에는 10명이 되었다 우리까지 합하면 총 15명.. 2배가 되기까지 우리의 노력은 사실 대단했다.

어떤 모임이 있을때 마다 아띠클럽을 소개하고 다짜고짜 초대했고 아띠클럽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며 우리와 함께 하자고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내왔던 것들의 결실인 것 같다.

우리는 이번 주 주제를 350PPM에 대한 설명과 한식 만들기를 제안했다.

알고만 있던 한식들이지만 사실 먹을 기회가 없거나 먹고 싶어도 꽤나 비싼 한식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사함을 전달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우리가 준비한 음식들은 4가지 분식세트였다.

서운이가 먹고 싶었다던 냉면  
누누가 먹고 싶었던 떡볶이  
떡볶이의 오랜 친구 김말이튀김  
함께 만들어 먹자는 의미에서의 주먹밥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처음으로 한인마트를 갔는데  
거짓말 안치고 천국이었다.

꿀떡, 송편, 인절미 왜 우리는 이곳을 지금에서야 왔을까.

물론 너무나도 비싸서 많이는 못 먹었지만 선물을 핑계로  
우리의 사비도 하늘로 승천했다..

모든 마트를 돌아다녀도 없던 떡볶이 떡을 시작으로  
냉면재료와 김말이튀김, 김가루를 사고 돌아왔다.



그렇게 모여 우리는 떡볶이를 만들고 김말이를 튀기는 것까지는 술술 진행되었다.

냉면을 삶는데 생각해 보니 냉면육수를 미리 얼려놔야 했는데 그냥 상온에 보관했으니 온면이나 다름 없었다...  
그럼에도 맛있게 먹어준 아띠클럽 여러분들은 천사... 그 자체

참기름이 너무 비싸 김가루에 간이 되어있는 참기름과 참깨를 이용했고 참치와 돼지고기를 다져 두가지 버전의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돼지고기를 안먹는 분,  
소고기를 안먹는 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못 먹는 음식이 있다는 게 안타까웠다..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행사 전에 물어봐 줄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쉬웠다.



이번 아띠클럽은 정말 연령대가 다양했다. 첫 모임멤버였던 보미와 누누의 오랜친구이자 우리보다 아띠클럽 선배인 뚜뚜와 저번 알츠하이머때 만난 진머까지 사회초년생이라 한다면 우리와 서연이는 대학생 라인을 맡았고.



저번 결혼식때 만났던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이었다. 정말 고등학생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잠재우는 것은 **절대 불가능**

**모이다 보니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되었다.**



우리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것 같은 뚜뚜가 우리의 350PPM에 대한 설명을 번역해주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이 거창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캠페인을 기약했다.

# 다시 만난 양곤 아기들

다시 시작된 보육활동에는 어떤 것이 변했다고 하기엔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 설렘고 아이들이 낯을 가리기보다 우리를 더 반겨주는 모습에 그저 감사한 순간들이었다.

아이들만큼이나 우리를 반가워 해주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우리가 제공받는 것 이외에 매 주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 낮잠 시간이 끝나면 간식까지 가져다 주시는 **마 오끌라바 선생님들,**

아이들 낮잠시간을 빌려 우리에게 미얀마 어를 가르쳐주시는 **양곤 Y 선생님들.**

우리가 가르쳐준 율동이나 활동들을 우리가 가지 않았을 때에도 교육시켜주셔서 우리의 활동들을 값지게 해주는 **라인따야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활동이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첫 주만 해도  
신나게 기차타고 3시간 가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사진찍을 힘도 없다..

역시나 보육은 체력이다.

마오글라바로 가는 왕복 3시간은 이제 기본이 되었다.

라인따야로 가는 왕복 5시간이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췌비따로 가는 왕복 7시간은,, 너무나 힘들다  
진짜 아기들때문에 참는다. 애들 얼굴보면 또 그렇게  
기분이 좋으니깐.

계산해보니깐

2주일간 보육을 가면

겉로가는 30시간 기차와 동일하다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지칠까 라는 생각은 틀렸다.

우리는 가면서 오면서 체력을 다 소모했다.

돌아와서의 첫 번째 보육은 산에서 진행했던 PCM을 하기로 했다.

산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육은 단연 위생 교육이라고 생각했기에 치아 양치교육과 손 씻기 교육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보육을 하는 내내 이를 지켜보면서 심각성이 더 느껴졌다.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갈색으로 썩어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든 집중하고 보면 더 잘 보인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 이의 심각성이 보였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 친구들의 이의 심각함도 느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치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교육의 격차,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얻는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으니 진행된 결과  
격차를 현실로 맞닥뜨리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컸다.

치통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아픈데,  
이 아기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니 대단하게 느껴졌다.



미얀마어로 대본을 준비해가서 가르쳤고  
산에서 가르쳤을 때 빨롱어 밖에 못했던 아이들과는 다르게  
이해력이 빠르고 관심이 많아서 별다른 참여유도를 하지 않아도  
먼저 나와서 하겠다던 아이들이 고마웠고 이런 관심에  
이 교육이 꼭 효과가 있었으면 한다.



위생교육의 두 번째로 우리는 손 씻기 교육을 진행했다.

간식시간이 따로 있으나 손 씻는 시간은 따로 없기에 아이들이 뛰놀고 땀 흘린 손으로 화장실 가며 과자를 집어먹는 상황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손 씻기를 샐에 이어서 양곤에서도 진행했다.

양곤이라는 경제수도라고 한 들, 다른 점들보다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것은 여전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지속적인 건강을 책임지지는 못할지라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가르쳐줘야 한다고 판단했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속성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밥 먹기 전  
아이들의 손 씻기 교육을 실전으로 옮겨보았다.

수질이 좋지 않아서 실시하지 못한 곳도 있었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대로 모두 실시하기에 아이들이 너무 많고  
오래걸리다 보니 식사시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식사 전 손을 씻어야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임과 동시에 실천하면서 조금은 위생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음이 좋았다.

산에서 우리의 교육이 끝난 후에도 선생님들이  
손 씻기 시간을 유지시켜 식사 전 모두 진행했던 것과 같이

이곳에서도 반복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위생을 책임지고 싶다.



# 오랜만의 하우스 키팅



Storied by 지훈

하우스 키팅 시간은  
오랜만에 다시 Y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다시 들어온 이 공간에서 같이 청소하고  
대화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하우스키팅을 하니 정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스텝과의 대화시간이 생긴 것들,  
멀리 가는 보육이 아닌 YMCA에서 활동해서  
체력소모가 적은 것  
다른 좋음이다.

오랜만에 맡는 장기투숙자들 방 역한 냄새,  
쓰레기통 비우기, 이런 것들이 반갑지는 않아도  
싫지만은 않았던 것.

이들과 함께라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번 달은 양곤으로 돌아와 생활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래도! 한 번은 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이번에도 한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 머머리



남은 2달 동안 과연 얼마나 길 것인가.

\* 투블럭컷 사진을 보여줬으나 어떤 사진을 보여주든 미얀마 미용실에서의 결과는 같습니다.

벌써 2번째 결혼식 초대를 받았다.  
한국에 있어도 5달안에 2번을 받기 힘든데  
3달만에 벌써 2번의 결혼식 초대.

이번에는 양곤 YMCA 내부에서 진행되었다.  
결혼식이 진행 될만큼 큰 기관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사실 한 번의 안면도 없지만  
매 결혼식을 갈때마다 그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며  
행복하길 바란다.



이번 결혼식에도 식이 끝난 후  
식사자리에 먼저 가서 음식을 세팅하고  
다 먹은 음식을 청소하는 일까지 함께 했다.

첫 초대와는 달리 능숙해진 우리들의 실력과  
척하면 척 알아듣는 우리의 센스가 발휘되었던 이번 결혼식이었다.

\*모든 장소는 우리 아띠클럽 초대장소나 다름없다.  
(오른쪽 사진의 사진작가님도 아띠클럽 친구~~)



# 현아의 11월 에세이

## 겔로에서의 일기

겔로의 미엔까 마을은 우리 집과 많이 닮아있다. 의자에 앉아 앞마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주보는 산과 앞마당의 돌들까지 우리 집에 있는 듯했다. 마을의 밭이, 길이, 나무들이, 겔로 집의 강아지가, 빨랫줄이, 앞마당이. 눈길 닿는 곳마다 우리 집이 떠올랐다. 미얀마에 와서 가장 집과 가족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었다. 떠누 할머니를 보며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싶었고, 한국에 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걸 하는 후회도 됐다. 겔로의 일기장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으로 가득찼고 양곤에 돌아가 꼭 가족들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양곤에 돌아오자마자 가족과 통화했고 익숙한 목소리들과 함께 행복함을 느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후회없이 사랑하자.

**이**를 만난 책도 노트북도 없고 와이파이도 되지 않으니 심심했다.

그래서 혼자 햇빛을 맞으며 걷기 시작했고 일기를 더 열심히 쓰고 생각을 정리했다. 여유롭게 정처없이 걷다가 담장이 예쁜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늘에 앉아 시원하게 솟은 산들에 감탄하기도 했다. 푸른 하늘, 몽글몽글한 구름, 갑자기 몰려오는 비, 삐죽삐죽 산들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이 왜 산책을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의 속도로 걸으며 주변의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고 순간에 감사했다.

겉로에서 산책의 즐거움을 깨닫기도 했지만,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다시 무엇을 해야할지 감이 안 잡혔다. 딱히 할 일이 없어 초저녁 잠을 자고 괜히 미안마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한 후에도 아직 8시 밖에 되지 않아 조금의 지루함을 느끼며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

노트북, 와이파이가 없었기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 아직 내가 그것들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음을 느꼈다.

**어**디를 가나 마을 분들은 나를 반겨주셨다. 그저 주변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도, 집을 찾아온 손님처럼 나를 맞이하고 사랑해 주셨다. 집에 들어 차와 간식거리를 주셨고 나를 딸이라 부르셨다.

마을 분들의 과분한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던 날들의 연속이었다.





**높**은 곳이면, 길의 끝이면 어김없이 파고다가 있었다. 집집마다 불상과 꽃들이 놓여있고 아침이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미얀마가 불교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니 시작했다.

곡선의 불탑들, 불탑 위의 풍향계, 그리고 종소리, 누군가 정성스레 놓은 꽃병들까지... 어느 순간부터 아름답게 느껴졌고 부처를 향한 미얀마인들의 깊은 존경과 사랑에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미얀마에서 본 불교는 그저 종교라고 정의할 수 없었다. 불교는 미얀마인들의 삶 일부분이었고, 생활이었다.

그리고 궁금했다. 어떻게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지, 존경할 수 있는지. '미얀마'에 대해서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

**꺼**로에서의 생활은 자율성이 비교적 많이 주어졌다. 양곤에서 가지기 힘들었던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하고 즐길 수 있었지만 일련의 상황 속에서 자율과 무질서함의 경계에 대해 고민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걱정하며, 마음의 불안을 느꼈고 감당하기 힘든 순간도 있었다. 서로에 대한 나름의 배려로 엇갈린 날들이 있었고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나는 생각보다 화장실이 중요한 사람임을 이곳에서 깨달았다.

꺄로로 향하는 기차 화장실은 정말 기차에 구멍만 뚫어 철로가 보이는 곳이었고 가까이만 다가가도 냄새가 심했다. 나는 가고 싶어도 차마 갈 수 없었다.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29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고 버텼다. 미연까 마을로 향하기 전, 꺄로 시내 집 화장실도 그랬다.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었지만 가기 싫었다. 내게는 심적으로 많이 버거웠던 공간들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도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면 잘 가지 않았다. 자는 곳, 생활하는 곳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유독 화장실이 그렇다.

깨끗함도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니 판단하지 말라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 버거울 수 있지' 하며 스스로를 이해해줘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 방콕에서의 일기



**우**리는 선불리 판단하는 일이 많다. 우리가 만나고 본 잠깐의 순간들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쉽게 뺀 한 마디로 그 사람을 정의해도 되는 것일까?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말이 들려올 때면, 듣고 있기가 힘겹다. 어느 순간 나 또한 누군가를 정의 내리고 있을 때면 죄책감이 든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말 한마디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자. 이따금씩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말은 더더욱 그렇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전에 ‘사람’을 선불리 판단하지 말자.

**산** 드라 간사님과 같은 방을 쓰면서 ‘에에’와 대화할 기회가 많았다.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였기에 관심사도 비슷했고 에에가 영어도 잘해서 소통하기 편했다. 에에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는데 에에는 말은 아직 서툴지만 중국어와 한국어를 알아 들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미얀마어는 물론 영어도 매우 잘하는데 그 외에 다양한 언어를 관심을 가지고 습득했다는 게 신기하고 대단했다. 에에의 비결은 바로 드라마와 노래였다. 여러 나라의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보고 즐기다보니 자연스럽게 귀에 익었다고 했다. 관심있는 분야를 통해서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닌, 하나의 취미로 접했던 것이다. 최근 들어 미얀마어를 과제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는데 에에를 보며 즐기는 것이 배움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에**에가 한국어를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 나의 말에 괜히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팀원들의 말에 노심초사했다. 나는 왜 조심스러워지고, 불안해하는 걸까? 그동안 언어를 방패 삼아 나의 말들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누군가에 대한 칭찬도, 일상적인 말들도 우리가 같은 언어를 공유했다면 한번 더 상대방을 생각해보고 뺐지 않았을까?

다른 언어를 방패 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의 모국어가 달라도 마음과 느낌은 통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다. 한결같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하진의 11월 에세이

겔로, 비자 트립, 그리고 다시 일상. 뽀뽀했던 9월과 10월을 지나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고 생각했던 11월을 1일부터 30일까지 떠올려 보니 바빴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했던 한 달이었다. 특히 겔로! 겔로에서 보낸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사실 겔로에 가기 전 조금 지쳐 있었다. 스스로가 소진되었다고 느껴졌고 특히 보육 활동은 짐처럼 느껴졌었다. 겔로에서의 보육이 많이 걱정됐는데, 앞서 적었던 것처럼 괜찮았다. 나의 좌 청룡 우 백호들아, 잘 지내니...

겔로에서의 생활은 정말 즐거웠다. 겔로에서 살고 싶다. 정말로... 작은 집에 살면서 슈퍼를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겔로를 사랑하게 된 건 99% 마을 분들 덕분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도 간식을 내어 주시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등 과분한 배려를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팀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그래서 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혼자 외출이 힘든 양곤 Y와는 달리 혼자 산책을 자주 나갈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다. 혼자 산책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해졌다.

이래서 에너지 넘쳤던 초반과 달리 후반에는 좀 지쳤다. 지쳐서 혼자 있으려고 했고, 이게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방해물이 된 것 같기도 해서 아쉬기도 하다. 이 생각을 겔로를 떠나기 얼마 전에야 할 수 있었다. 하진이랑 슈퍼 가는 길, 하진이가 마주치는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할걸'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고개만 까딱이거나 헤헤 웃기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말을 걸고 더 크게 인사했다면, 말을 한마디라도 더 붙여 봤다면... 슈퍼에서 차를 마실 때 내가 예~하는 동작 하나만 하셔도 즐거워 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살펴봐 주셨던 주민 분들의 모습도 괜히 생각나고.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1월에 꺼얀이라는 새로운 마을에 가니 그 때 더 잘할 수 있겠지. 스스로에게 기대해 본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편안하기도 하지만 조금 지겹기도 하다. 하지만 12월은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나 새해나 다가올 연휴를 생각하면 설레기도 한다. 양곤 Y의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 스태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아직 약간의 피곤함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스스로를 잘 추슬러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 열심히 살아야지. 파이팅!

# 하진의 11월 에세이

11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달이 넘어갈수록 미얀마에서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초조해진다.

이번 달에는 껄로와 비자트립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특히 민카 마을은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를 느껴가던 나에게 정말 선물같은 곳이었다. 웃음이 예뻐던 몽친과 그의 조카 쟈섬미에게 작별인사를 못해 너무 아쉽다. 그리고 떠나기 전 날 혼자 산책하다 마주친 분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민카 마을에서 살고 싶다니까 2월 달에 한국 가면 3월에 다시 와 우리 집에서 살라고 말씀해주시고, 팀원들과 함께 먹으라며 과자까지 바리바리 싸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또한 마을을 떠나기 직전 처음 만난 청년이 우리가 떠남을 아쉬워하는 것을 보며, 마을 주민 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허락된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졌다.

껄로에서의 보육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는데, 특히 쉬는 시간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생각난다. 내 양 손을 붙잡고 함께 뛰었던 좌 청룡 우 백호... 내 머리에 꽃도 달아주고 뛰다가 떨어지면 손으로 흠을 털어 다시 꽃아주기도 했다. 그리고 굴도 까줬는데 같이 먹자고 하면 나 많이 먹으라고 끝까지 거절했던 다정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시간이 맞지 않아 그 아이들과 마지막에 사진을 못 찍은 것이 너무 아쉽다. 정말 흘러가는 시간을 손으로 꼭 잡아 놓지 않고 싶었던 2주였다.

그러나 이 곳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 곳은 아니었는데, 마음 한 켠에는 항상 불편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마을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편으로 너무 힘든 2주이기도 했다. 사실 민카 마을에서 힘들었던 이후로, 내 자신이 쳐졌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 지 모르겠다) 생각이 든다. 스텝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방으로 들어오면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고, 이제 나에게 즐겁고 신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양곤에 도착한 후 이틀 후에 바로 방콕으로 비자트립을 떠났다. 방콕은 가족과 한 번 왔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아쉬웠던 여행지였다. 좋은 기회가 생겨 팀원들과 돌아다니며 다시 한 번 방콕을 경험하고, 여행하는 사람에 따라 색다른 여행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특히 파타야에서 여러 해양 스포츠를 즐겼던 것과 복합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좋았다.



다시 양곤으로 돌아와 일상을 보내면서 너무 보고 싶었던 양곤 Y 유치원 아이들도 만났다. 내가 엄청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애정을 구걸해도 우리 모두에게 냉담하던 아이였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나니 인사를 받아줘서 너무 감동이었다.

아스팔트 거리와 땀이 주룩 흐르는 양곤에 있으면 껄로가 자주 생각난다. 특히 산책이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요즘은 복도를 오랫동안 돌고 있다. YMCA 안은 너무 답답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 슬프다.

이번 달이 돼서야 처음으로 아띠 클럽을 시작했다. 이분들과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가 걱정했던 언어의 장벽 문제가 소용이 없었다. 1년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띠 클럽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와 준 분들, 결혼식에서 만난 것을 인연으로 정말 참여해 주신 분들 등 아띠 클럽의 첫 만남을 장식해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쉽지만 최대한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

껄로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은 가슴 한 켠에 묻어두고 12월도 양곤 Y 스텝들과 순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또한 요즘 운동도 안하고 내 자신이 좀 풀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계획한 일들을 다시 마음잡고 해 봐야지. 양곤 Y에서 보낼 12월과 크리스마스도 너무 기대된다!

# 한희의 11월 에세이

11월 한달은 많이 즐겁게 보낸 것 같다.

11월을 시작한 께로도 그 이후 떠난 비자 트립도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일상들도 즐거웠다  
여기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

짜여진 일상들 보다 내가 만들어가는 일상들에서 많은 재미를 느낀 한 달 이였고  
보육, pcm, 350ppm이라는 우리들의 주어진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또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 가짐 같은  
보고서를 위한 것이 아닌 크게는 미얀마라는 작게는 내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한 달 이였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무엇이 중요한거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조금은 헛갈리는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보여지는 것과 느껴지는 것 중에 더욱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동시에 요새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지 않던 아버지가 자주하시던 말씀인 '정답은 없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거 같은 느낌의 한 달 이였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 동안은 뭔가 그냥 눈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

나의 판단 하는것이 아닌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지금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기억들을 많이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경험으로 이 순간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 김치훈의 두뇌 속 멍겨있는 실타래 1

아프기 싫다.

이곳에 와서 정말 자주 아프다.

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하게 생활하다 돌아가기.  
이곳에 도착한지 2주도 채 안되어 물갈이로 인한 실패를 시작으로  
감기, 복통, 두통, 발 근육통까지 이렇게 자주 아프고 심하게 아프는데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 아프면 서럽고 하고 싶은 것들도 못한다.

또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프기 싫다. 나름 단단하다고 생각한 나인데  
육체든, 정신이든 허약한 나임을 깨닫는 순간이 싫다. 아프기위해 온 것이 아닌데.

산에서의 생활은 겁으로 시작해서 겁으로 끝났다.

이곳 생활이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다시 다른 곳에서 적응하기 겁이 났다.

이전 기수팀원들 보고서를 보며 산 시설에 대해 걱정과 함께 겁이 났다.

그렇게 가게 된 산은 우려와는 다르게 기차타는 30시간도 나쁘지 않았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던 바깥 풍경들과 노을을 기차를 타지 않았으면 보지 못했을테니

겁을 잔뜩 먹었었기에 하우스 키핑때 부탁해서 받은 배게와 이불커버들을 가져가서 찻집하지 않게 잠을 청할 수 있었고,  
우물화장실 대신 새 집에 새 화장실이 있었으니.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었다.

농장 일도 과하지 않았으며 뭐든 정보는 활용하되 선입견을 갖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양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선선함, 너무나 예뻐던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설렘다.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를 펼치며 보이는 그 하늘은 아직도 잊지 못할거다.

보다 자유로웠던 그곳에서 발이 아파 산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보육장소도 걸어서 왕복3시간이었으니 참여하지 못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의도한 것들이 아니지만 혼자인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적어졌고

자유로움 속에서 소통이 적다보니 무질서가 생겨나 팀원끼리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많았다.

그 풀어가는 과정 또한 힘들었지만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었으니 언젠가는 마주할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 김치훈의 두뇌 속

## 영적있는 실타래 2



몇 년 전 갔던 방콕을 이 팀원들과 다시 오게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같은 수도임에도 다른 방콕의 편리함과 깔끔함이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소비다운 소비를 했던 것 같다.  
방콕에서 제일 의미있던 것은 망했던 내 머리를 한인미용실에서 복구했다는 것.. 비록 미얀마 미용실의 10배 가격을 줬지만 만족도는 아주 높으니 그것으로 됐다.

이번 한 달 내가 정한 나의 키워드는 집중이었다.  
그렇지만 집중할 때에 마주하는 불편들이 너무 힘들다.  
얼핏 들었던 우리와 함께하는 스태프들 월급이 15만원도 안된다는 것이 현실임을 마주하는 순간.  
흑인이기에 신분증도 없고 아직 여권이 없는 친구.  
한국에서 피해야할 존재로 치부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의 친구였다는 것.  
가게에 있는 할머니,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밥 먹은얘기, 날씨얘기, 요리얘기와 같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며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텐데 하며 얻는 후회,



후회는 접어두고 2달이 지난 후에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이곳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이곳 사람들과 아이들.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

활동을 할때마다 내가 생각보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겁이 많다고 느껴졌던 순간이 많았다.  
마을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관심있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주었다.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어의 장벽이라는 문턱까지의 장애물이 생길 때 또 다가온다고 한들, 그 만큼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사람을 고르는 사람이었나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짐이 아쉽고 헤어짐이라는 것이 정해진 이 만남이 두려우며 평생 헤어짐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못할 것 같은 건 무슨 모순인걸까

사진을 찾아보는데 웃는 사진이 없다. 이것또한 슬픈일이다.